

여야 심판론 대결에 제3지대 '초라한 성적표'

녹색정의당, 지역구·비례 0석...심상정, 정계 은퇴 발표

역대 첫 무소속 당선 '0'...새로운미래, 어부지리 1석 그쳐

거대 정당의 4·10 총선 독주로 녹색정의당과 무소속은 1석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들께선 정권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세력으로 녹색정의당까지 선택해주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혁신할 때"라며 "전당적인 토론과 실

천, 시급한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진보 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해 22대 국회에서 창당 12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다.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의원마저 경기 고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했고, 심 의원은 이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녹색정의당은 당분간 김준우 상임대표 체제를 이어가다 5월 중 새 지도부를 뽑

을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데 새 지도부 구성과 맞물려 당의 방향과 당명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구 1석(세종갑 김종민 후보)만 얻은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헌정 여정의 첫걸음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의 선택과 도전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며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가득한 극한 대립의 정치 또한 함께 종식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당장 다른 정치세력과 통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 의지는 한 순간도 변함없으며 범야권이라 불리는 모든 정당과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막아 세우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6대(1961년)와 7대(1967년), 8대(1971년) 총선에서도 무소속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정당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무소속 입후보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총선이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으로 기록되게 됐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경북 경산)가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 가능성을 키워왔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간발의 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예초 이번 총선 무소속 출마자는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뚜렷이 형성되면서 4년 전(116명)의 절반인 58명에 그쳤다.

더구나 이러한 총선 구도를 넘어설 만한 경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무소속 당선인 0명'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4수 끝 국회 입성 개혁신당 이준석(가운데)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회의원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사전투표율에 출구조사 '삐끗'

선거법상 사전투표 조사 못해...데이터 보정 정확도 떨어져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 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지만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최대 차로 예상됐던 '범야권 200석'은 나오지 않았다.

11일 오전 5시 20분 기준(전국 개표율 99.05%) 개표 현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09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75개를 각각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 예상 의석은 조국혁신당 12개, 개혁신당 2개, 새로운미래 1개, 진보당 1개 등이다.

선거 당일인 전날 오후 6시께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85~105석, 민주당과 민주당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군소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으로 예상됐다.

민주당(민주당연합 포함)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전망인 동시에 민주당에 조국혁신

당을 합한 범야권 의석이 '200석 안팎'이라는 관측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의 경우 민주당과 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은 개표 결과 187석(민주당 175+조국혁신당 12)인데 이들 정당의 출구조사 최저치를 모두 더하면 190석(민주당 178+조국당 12)으로 3석이 많은 것이다.

SBS는 출구조사의 범야권 의석 예측 최저치는 193석으로 6석이, MBC는 194석으로 7석이 각각 실제 개표 결과보다 많았다.

이처럼 실제 결과와 출구조사가 다른 원인으로 31.28%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 1384만9043명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방송사의 데이터 보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 3사는 이번 출구조사 사업비로 총 72억 8000만원을 들였음에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선거비 보전' 희비...송영길·이정현 100%, 이낙연 50%

광주·전남 후보 44%만 보전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36명 중 44%가량만 선거비용 절반 또는 전액을 보전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 72명 중 광주 11명, 전남 16명 등 총 27명(37.5%)만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절반 보전 대상자(10% 이상~15% 미만 득표)는 5명(6.9%)에 그쳤다.

광주에서 당선된 8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외에

소나무당 송영길(17.38%), 무소속 김성환(16.15%), 진보당 윤민호(16.34%) 등 후보가 선전해 선거비를 모두 되돌려 받게 됐다.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 절반만 보전받게 된 후보는 새로운미래 이낙연(13.84%), 국민의힘 강현구(11.30%),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현식 후보는 득표율 9.11%를 기록해 간발의 차이로 절반 보전 대상에 들지 못하는 등 강현구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광주 출마자 대부분이 선거비 보전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10명 외

에 6명이 전액 보전을 받는다.

당선자를 제외하고 득표율 15%를 넘긴 전남 후보자는 무소속 이석형(35.91%), 국민의힘 이정현(23.66%), 무소속 권오봉(22.37%)·백재욱(20.50%), 진보당 안주영(19.75%)·이성수(18.04%) 등으로 나타났다.

절반 보전 대상 전남 후보자는 총 2명으로 무소속 이윤석(13.65%), 국민의힘 박정숙(11.10%) 등이다. 나머지 20명 후보는 10% 미만 득표에 그쳤는데, 국민의힘 김형주(9.30%)·김중운(9.17%) 등은 간발의 차이로 절반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출신 비례 당선 6인 활약 관심

민주당 3·국민의미래 2·조국혁신당 1명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을 차지했다.

정당 투표율에서는 3% 이상을 얻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서는 서미화(1번)·전종덕

(11번)·김윤(12번) 등 광주·전남 출신 3명이 당선권에 들었다.

국민의미래에서는 강선영(5번)·인요한(8번) 후보가 전남과 인연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당 정책위의장이 비례대표 12번을 배정받고 당선됐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인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대구 출신이지만 순천에서 정치 생활을 해오며 지역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